라인, 텍스트, 도표, 그래프이(가) 표시된 사진

자동 생성된 설명

1. SPY와의 상관관계

[채권]

- 단기, 장기채와의 강한 음의 상관계수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금리인하 시기(2008 서브프라임모기지)에 특히 두드러짐

- 12년경 있었던 유로존 경제위기 당시 단기채보다 장기채에 더욱 큰 악영향, 이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가 글로벌 위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지 않나 유추 (2008년 이후 S&P 꾸준히 우상향)

- 전체적으로 채권과 주식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BIL(초단기채권)의 경우에는 너무 만기가 짧다보니 딱히 상관관계 가지지 않음

[원자재]

- 글로벌 위기 이후 금리인하에 따른 유동성의 증가로 주식가격이 오를 때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오르는 경향

- 농산물의 경우 유동성이 증가해도 수요가 크게 늘지 않기에 보다 작은 상관계수 가지는 것으로 유추

- 16년도의 경우 금리 인상기였음에도 원자재와 주식 양의 상관관계(이유는 잘…)

[부동산]

- 주식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 보임(당연하게도)

- VNQ가 횡보할 때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. (17-20년 정도?)

- VNQ는 리츠에 투자를 하는 거지 부동산 가격자체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서 그렇지 않나 유추

2. GLD와의 상관관계

- 기본적으로 금은 모든 자산들에 상관없이 움직임, 위험이 증가할 때 안전자산으로써 선택받기에 대체적으로 글로벌 위기시에 상승

- 이는 글로벌 위기때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원자재와 궤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만듦(물론 여기서도 농산물보다는 원자재가 더욱 민감)